

국내외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력의 개념도 문화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도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부측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는 점을 문화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문화산업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산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것일까? 문화산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우수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적 화두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의 국민들도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문화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면, 전통문화유산의 핵심은 무엇인가? 단연코 불교문화유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화의 70% 이상, 국민의 52%, 국민의 64%를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5건의 국내 문화재 중 2건이 불교문화유산에 해당하고 이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은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간과되어 왔다. 또한, 이 불교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는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그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은 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우고 있는 '정보박물관'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전시'는 있으나 '정보'는 없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글쓴이가 미국 최대의 자연유산인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을 때, 글쓴이에게 감명을 준 것은 웅장하던 자연 경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유산을 지리적, 역사적, 생태학적 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던 정보 센터(Information Center)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센터가 아닌 작은 자연사 박물관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온 국토가 박물관'이란 말처럼, 사실상 보여 줄 것이 많은 나라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작업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적 화두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의 국민들도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문화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므로, 이제 국내불교계는 한국불교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불교문화유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다.



김종명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형제 과연 '필요악'인가

여야의원 70명 '사형폐지법안' 마련 "생명존엄성" 대 "범죄예방" 논란팽팽

지난 5일 여야의원 70명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마련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천주교 등이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해 왔던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국가 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행벌로 끊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회질서 유지 등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박탈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이상목표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법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아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고, 흉악

범을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법외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기는 하나, 폐지 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는 106개국으로, 그렇지 않은 89개국보다 많은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이후 현재까지 모두 9백여명이 사형집행을 당하는 등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불교는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망경>에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수타니파타>에는 "산 것을 몹스 죽여서도, 남을 시켜 죽여서도,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설하고 있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故 황산덕씨는 법무부장관 재직시(74~76년) 육영수 여사 살해범 문제권에 대해서만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을 뿐 일반 사형수에 대해서는 집행명령에 결재를 하지 않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그동안 꾸준히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해 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게 하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다시 원한을 맺는 악업의 윤회를 되풀이할 뿐이다"라며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으뜸 덕목으로 삼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사상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제 사형제도 문제는 전향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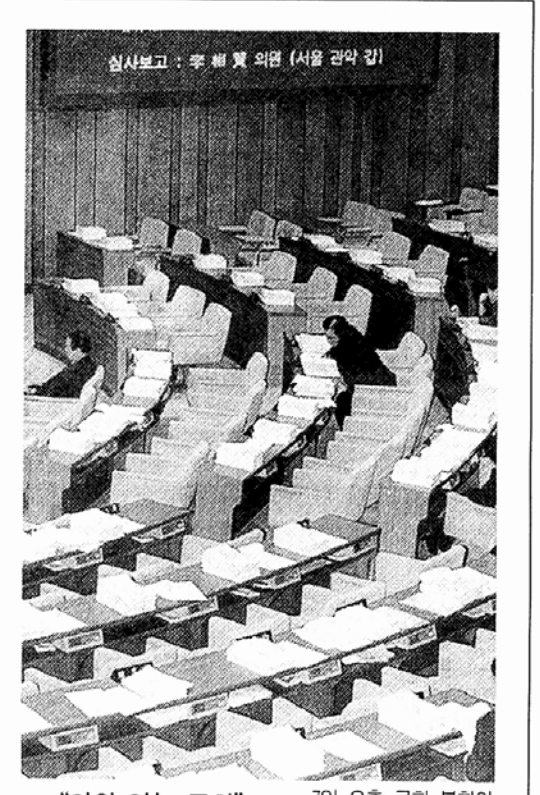
에이즈 치료백신 국내 개발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팀 '20세기의 재앙'으로 불리는 에이즈 새 밀레니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국내 연구진이 에이즈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팀은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를 세포에 주입시킨 뒤 세포에서 면역 세포가 생성되게 유도하는 DNA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 14년동안 개발된 여러종류의 백신들이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개발된 에이즈 백신은 인간에게 적용할 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 영장류 동물센터의 훈스만 박사는 "많은 에이즈 백신을 실험했는데 이번 백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효능을 보였다"며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성교구는 "이번에 개발한 에이즈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할 순수한 DNA만으로 제조해 3년 안에 치료용 백신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없는 국회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5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에 미달, 결국 1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산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 두 번째다. 자리를 떠난 이유는 '비빔밥'이 갖는 것. 도대체 국정보다 더 비싼 일이 무엇일까.

국민 95% "경조사비 부담스럽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전국 24개 도시 성인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9%가 경조사비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해 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2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에 내는 경조사금 액수는 평균 2만19천4백2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에 내는 경조사비중 평균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은 결혼 축하금으로 3만1천6백원이었다.

생활정보

민방위 45세로 낮춘다

생활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민방위대 조직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1백30만명이 민방위 소집에서 해제되게 된다.

저소득층 중·고생 등록금 지원

교육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고생의 등록금도 정부가 부담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폭도 크게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40여만명에게 등록금을 구상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보험료 월 납부액 3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으로 생활정도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요금도 카드로 낸다

세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6일 LG카드와 제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을 LG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납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카드로 지하철 탄다

교통 내년 1월3일부터 버스카드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 버스는 물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카드를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은 물론 지난 10월초 개통된 인천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 주민들도 서울시 버스카드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의 버스카드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대공원등 자연교실 마련

자연학습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식물을 직접 접하면서 배우는 자연학습교실을 마련한다. 서울대공원 동물교실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식물교실은 1월22일까지 계속된다. (02-500-7530). 어린이대공원의 동식물교실은 이틀짜리 프로그램으로 23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열린다. (02-450-9305)

담배 피우미용에도 해롭다

건강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도 해가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암연구소는 하이델베르크대학원 조사결과 흡연자의 피부는 비흡연자보다 빨리 거칠어지며, 흡연시 주름살이 빨리 늘어난다고 최근 경고했다.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흡연자의 회복속도가 비흡연자보다 훨씬 늦고 경과도 나쁘다고 밝혔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은 깊어가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연인들의 낙엽 밟는 소리가 속삭이듯 가만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현대 결혼 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실히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로 사무실 중축과 내부수리 관계로 강남역 현대 공동텔 오피스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밀레니엄 새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박자를 가하여 여러분 사랑에 끊임없이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시기를 바라며.. 부처님 가피로 가정이 번창하시고 신심이 더욱 돈독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공동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3472-5575
핸드폰 : (018) 277-5592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부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수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치지 않고 횡대까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회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이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특종으로 중단전 차크리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핏방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산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리며 침은 마르고 입술 터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가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수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벽간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물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용맹교육 소공당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 771-7745 (011) 9088-7745

發願已歸命禮三寶「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内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 및 단가	: 5단 x 37cm - 80만원 5단 x 18cm - 40만원 5단 x 9cm - 20만원 7cm x 6cm - 10만원
제작일	: 99년 12월 24일(금)
제작면수	: 28면 합쇄
접수 마감	: 99년 12월 18일(토)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